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포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새해0시 송구영신예배

-기독교 TV (채널42)에서 실황중계-

신년 1월 1일 0시 송구영신 예배 실황이 기독교 TV(채널42)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소등이 되고 20분간 2층 현관에서 핸드벨이 송년을 보내는 종소리를 울린 후 0시 5분전 11세 되는 소년 소녀 2명이 촛불을 들고 입장을 한다. 우리교회가 새해 11주년이 되는 해가 되므로 11세 아동이 촛불을 들고 들어오는 목사님을 인도하는 것이다.

목사님 뒤에는 핸드벨이 새해를 맞는 종을 울리며 행진하고 그 뒤에 당회원들의 촛불행진이 이어진다. 목사님이 단에 초를 꽂고 두 아이로부터 초를 받아 강단에 세

울 때 정면을 바라보고 서있던 장로들은 말은 열로 흘려져 초에 불을 붙인다. 불을 받은 이들은 뒤로 또는 앞으로 계속 불을 붙이면 한 의자에 초 두 개씩 켜짐으로 온 교회는 삽시간에 밝혀진다. 초에 불이 밝혀지는 동안 오르간 연주가 계속되다가 0시 정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는 예배초청과 함께 신년예배가 시작된다.

예배는 순서를 따라 진행되며 촛불의 위험이 있으므로 불을 맡은 이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 날 좌석은 가급적 입장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질서 있게 앉아 예배를 준비해줄 것을 예배위원회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신년감사에배 및 성찬식

-공동의회 · 순결서약식 가져-

새해 첫 번째 주일인 1월6일 낮 예배시간에는 신년감사에배와 우리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는다. 이날 찬양예배 시에는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Ⅲ부 예배 후에는 2001년 결산과 새해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를 갖는다.

강남지역 신년 연합 신앙수련회

-1월14일(월) 오전 9시30분-

서울 강남노회 교육부 주관 강남지역 연합 신앙수련회가 1월14일(월)에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1부 개회예배 설교는 이중운 목사가 2부 특강은 민경배 목사(연세대)와 박중순 목사(충신교회)가 각각 맡는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신년 하례회

강남지역 기관장들과 구청장 및 국회의원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신년하례회를 1월3일(목) 오전7시 우리교회 만나 홀에서 갖는다.

한편,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1월1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사무식을 갖고 위임목사 사택에서 신년 하례회를 갖는다.

2002년 청지기수련회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7일~1월12일 매일 오전 5:00~6:30에 청지기 수련회가 본당(2층)예배실에서 다음과 같이 거행된다.

날짜	1/7(월)	1/8(화)	1/9(수)	1/10(목)	1/11(금)	1/12(토)	1/13(주일)
구분	교회학교교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교구일꾼	장로인수집사	청지기전원
5:00	특별새벽기도회(강사: 이중운 목사)						(찬양예배)
5:50	교회학교 운영의 실제 (정윤돈목사)	예배위원의 자세 (이성득목사)	찬양과 예배 (윤영국목사)	효과적인 전도회운영 (이규정목사)	교구일꾼의 역할 (고경선목사)	종직자의 사명과 자세 (김운호목사)	청지기헌신예배 제직수련회 (이중운목사)
6:30							

신앙 강좌반 개설

-새해 첫 주부터 두 강좌-

평신도를 위한 신앙(신학)강좌가 매주일 오후 1시부터 701호실과 601호실에서 열린다. 평신도 신앙 강좌반(부장: 김상철 장로)은 1월 첫 주부터 4월말까지를 한 학기로 하고 1년 3학기제로 운영된다. 이번 학기에는 김영한 목사의 '종말론'과 이만열 전도사의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각각 개설된다. 중학생 이상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체계 있게 정립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새가족부를 수료한 이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김영한 목사는 숭실대 교수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이만열 전도사는 숙명여대 교수로 서울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은바 있으며 이들은 우리교회 협동 교역자로 섬기고 있다.

오늘 특별 제직회

2001년도 결산과 새해예산을 다루는 특별 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에 열린다. 당회원, 권사회원, 스테반 회원, 서리집사들은 책임 있게 참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청년 · 대학부 토요집회 열린다

-오는 4월 첫주부터-

청년 · 대학부 회원들이 좀더 주일봉사에 전력하고 회원간에 친교, 훈련, 찬양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토요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3국(국장:김광신 장로)이 제안하여 당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우리교회 대학 · 청년부가 새로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까지 해오던 주일 청년 예배(Ⅲ부)후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성경분반공부를 주로 하고 주일 찬양예배에 참여키로 했다. 기타의 집회활동은 새로 창설되는 토요집회 시간에 하기로 했다. 당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인 토요집회가 되도록 기도와 계획을 세운 후 오는 4월 첫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해 교육부서 장소 변경>

교회학교	현 사용장소	변경된 장소
유아부	402~403호	702호
초등부	702호	701호
장년3부	701호	본당4층
신혼가정부	606호	702호
신앙강좌부		601호,701호

이사야서 강해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사야 54장 7 - 17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진노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중운 목사

예루살렘은 교회 또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진노가 없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성도에게는 때때로 몸에 병드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매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1. 다시는 진노가 없을 것이라는 언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잠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70년이 잠시동안입니다. 이 시간을 잠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비하면 고난받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비할 때 형벌의 기간은 실로 잠시였습니다. 잠시나마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였으나 위로와 자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잠시 동안 성도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동안 유대민족에게 진노하셨으나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으실 것을 언약하십니다(9-10절). 이것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결코 무너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다시 완전히 멸망하여 2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10절).

하나님의 언약은 산들이 변하는 한이 있어도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틀린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킬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회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10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진노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2. 새 예루살렘의 위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 했고 많이 지쳐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눈을 들어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므로 위로를 주십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11절).

이것은 교회의 비참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은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12절).

그러나 교회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엄할 뿐만 아니라 화려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계 21:11-2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1-2).

새 예루살렘이 이르면 신자들은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혼을 받을 것이니"(13절). 하나님의 교혼을 받는 자는 거듭난 자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체자가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13절).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없을 것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14절).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3. 새 예루살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14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15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므로 필경 패할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무기를 만드는 공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그들도 성도의 보호자인 하나님 수중에 있고 또한 파괴하는 자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16절). 아무리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를 망하게 할만큼 날카롭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찌르지 못하므로 또한 성도를 찌를 수 없습니다.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17절). 성도를 대적하며 송사 하는 언변이 아무리 능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는 그들이 패배를 당하는 까닭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를 받습니다.

17절 하반절의 '이는'은 히브리어로 '조드'라고 읽으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며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곧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보장을 받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적들은 감히 침범하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교혼을 받고 거듭난 이는 평강과 의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권리가 주어졌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며 성도의 영광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서울교회 설립 10주년 맞이하다

드디어 우리 서울교회 년수가 10년을 맞이했다.

10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서울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란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예배당에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

온 성도들은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10살의 성숙성을 더해 그때 일을 기억하여 앞으로 더 겸손하게 주위를 돌아보고 돕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2. 단기 선교팀 파송

우리 교회는 단기선교팀을 지난 8월 13일 파송하였으며, 이들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지역의 깊은 밀림을 뚫고 오지로 들어가 그곳의 원주민 카렌족과 함께 생활하며 교회를 짓고 복음을 증거 하였으며 어린이 지도등의 다양하고 알찬 선교활동을 펼치고 귀국하였다.

이제 우리는 모든 선교활동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일만이 남았다.

3. 탈북 난민 보호 UN청원 운동 1천만 명 돌파

지난 3월 28일 탈북 난민 보호 UN청원서의 서명자가 일천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교회가 시작한 탈북 난민 보호 UN청원운동이 시작된 지 2년 만의 성과로서 지난해 8월 800만명 달성 기념 감사예배를 드린지 7개월만에 200만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한편 우리 교회에서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전체 서명자는 일천 백만명이 넘는 이 같은 결과는 세계 서명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굶주림과 핍박속에서 견디다 못해 탈북하는 이들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 UN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며 한국교회가 이제는 행동으로 열매를 구해야 할 것이다.

4. '목사복' 국방부에서 군복 정복으로 채택

우리 교회가 발의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3년간 연구한 끝에 마련한 목사복이 국방부에서 육,공,해병대 군복 정복으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계급장에 십자가만 붙이고 다니던 군복들이 목사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선 지휘관들과의 관계정립에는 물론 군에서의 복음 증거에 가시적인 효과까지도 더해지게 되어 사병들의 영적 아버지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 선교역사상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

2001년 서울교회 10대 뉴스

그렇게 고대하며 맞이한 새 천년의 첫해가 지나고 이제 그 두 번째 해가 저물어 가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최악 혹은 최저라는 단어가 무성하고 그 나라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도덕성과 윤리의 상실, 심각한 경기침체,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 등 막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올 한해 우리 서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등 내일을 밝히는 희망찬 성과도 많이 있었다.

순례지는 다시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서울 교회의 2001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올해를 제조명하고 새해를 전망해본다.

(편집자註)

이다.

5. 공산권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

기도로 준비하던 신학교를 공산권에 세우게 된 우리 교회는 지난 8월 5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시에 공산권에 복음을 전할 일꾼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에 헌신하며 현지의 자생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될 선교사로 홍의만 목사와 윤혜경 교수를 파송하였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사탄의 방해를 딛고 승리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선교사가 되어 뜨거운 기도와 헌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7대 장로선출 및 임직

지난 5월 27일 주일 찬양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우리교회 7대 장로 5명이 피택 되었으며 6개월간의 수련 및 교육기간을 거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교회설립 10주년 감사예배 시 임직을 받았다.

10년 전 눈물만 흘리던 우리에게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교회와 세계를 향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7. 입당 감사 찬양제 '열렸다 하늘 문이'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소나비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당회장 이중윤 목사 작시 박정선 작곡의 칸타타 "열렸다 하늘 문이" 5

월 26 본당에서 공연되었다. 한국교회사상 최초의 개교회를 위한 칸타타로서 한국교회와 교회 음악계의 높은 관심속에 막이 오른 이날 온 교회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과 경이로움,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담아 찬양을 드렸다.

8. 새로운 예배의 모범-가족예배의 조기 정착

새 예배당에 입주하면서 우리교회는 주일 1부예배(9시)는 가족예배로서 온가족이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분반공부실로 각각 흩어져 하나님 말씀공부와 소그룹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가족예배와 소그룹 성경공부반이 우리 교회의 매력적이고 힘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예배는 한국교회의 예배문화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예배문화의 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9. 인터넷 방송설교 (c3tv,호산나tv)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웹속 변화의 물결 중 정보화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컴퓨터와 각종 매체가 결합된 정보화의 첨단 멀티미디어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거리를 초월함으로써 복음 전파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동영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말씀에 갈급한 수많은 심령들에게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교회성장과 선교에도 일조하는 새로운 토대가 되었다.

10. 서울교회 10년사 편찬

지난 12월 26일 서울교회 10년사가 발간되었다.

우리가 10년사를 편찬함은 교회의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는 한국교회사의 큰 획을 긋는 자리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우리 교회의 10년사의 정확한 정리는 자라나는 신세대에게 우리 1세대들의 신앙의 모범을 전하는 증거와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며 계속하여 한국교회를 선도하여 갈 서울교회의 지표를 설정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장로안식년 · 권사은퇴식을 맞으며 †

안식년의 문턱에서

정병무 장로(3교구)



하나님의 크신 창조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서울교회가 이 땅 위에 고고성을 울리며 설립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그 위상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이제 두 번째로 안식하게된 장로가 되었으니 이 또

한 한국교회의 부단한 개혁의 한 축을 이어가리라 믿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능을 터득하여 인간내면의 신뢰와 공경심과 평안이 삶 가운데 언행으로 표출되는 값진 안식년제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반문합니다. 칠삭둥이 같은 이 중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시무장로로 불려주시고 미숙하고 부족함 투성이 입을 덮어주시고 쓰임 받게 하셨으나 못다한 충성뎌임을 자백합니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며 절제와 경건을 터득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어 보다 효과적인 목회의 조력자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정의(知情意)의 주님의 제자로 더욱 가

카이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입술만이 아닌 더 낮은 자리를 찾는 자로 힘쓸 것이며, 우리교회 평신도 회원으로 주신 직임인 다락방장, 장년4부 교사, 베들레헴 찬양대원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신앙공동체의 조직원으로 책임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각오를 다져봅니다. 그 가운데서 유순한 말, 정직한 말,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로 덕을 세워가며, 항상 웃는 얼굴로 형제 자매 교우들에게 마음의 사랑을 전달하는 실천자가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족한 믿음에서 진일보하는 한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한 달란트의 악한 종이 되거나 앓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소감을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기만을 간구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김태기 장로

돌이켜 볼 때 10년 전 우리는 출석할 교회도 찾지 못하고 붙들고 있던 십자가 마저 놓쳐 버린 죽은 자와 다름없는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무거운 고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1991년 10월 6일 구원을 베풀어 은혜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켄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치기로 서원하여 식발하신 이종운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앞장 세워주시고 상처투성이인 길 잃은 양들 168명을 불러 논현동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위로자이며 해결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지 50일, 우리의 기도를 열납하셔서 11월24일 주일 창립예배와 성찬예식,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은 300년 전 청도교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미국이 선 것처럼 미래의 한국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석양이 가까워 내 나이가 70 개개에 서보니 지나간 세월동안 마음이 많이 헤이 해졌음을 고백

렇게 실감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선 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 때문이라는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은빛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다가도 은빛찬양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젊은이들의 노래가 뭐 그리 들을만하다고 은빛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납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찬양대를 세워주신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쓸모없는 늙은이지만 서울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성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은 평생 기도로 봉사하겠습니다.

합니다. 가장 귀하고 큰 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이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작고 하찮은 육신의 것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이라도 불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면 무슨 염치로 주님을 뵈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직분의 안식을 허락하심은 좋고 있는 저를 깨워주시고 꺼져 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줄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등불을 밝게 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뵈 수 있도록 남은 여생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죽도록 충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권사 은퇴식을 맞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나옥녀 권사(11교구)

이제 막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은퇴 권사라고 하니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고향인 황해도 웅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도 믿는 가정이었지만 시어른들과 자녀들에 치여 마음껏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주일에만 겨우 교회를 다닌 것이 항상 주님께 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고 훌륭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환경도 여의한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의 때를 아끼라고 하신 말씀이 이

↑ 승용차 3대 매입

부목사 2분을 청빙하고 이미 사용중인 부목사 차량1대를 교체키 위해 승용차(베르나)3대를 매입 사용하고 있다.

↑ 성탄헌금 구제와 전도에

우리교회는 성탄헌금을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금과 23사단 교육관 신축 헌금으로 각각 보냈다. 선교, 교육, 구제의 세 기둥을 세우고 있는 우리교회는 지난해에 아프리카 카메룬 북음주의 신학교 도서기금으로 성탄헌금을 보낸바 있다.

↑ 찬양예배 오르기니스트로 오신옥 선생

그동안 공석 중이던 주일 찬양예배 반주자로 오신옥 선생(1교구)이 임명되었다. 오선생은 이화여대 및 동 대학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원에서 피아프 오르간을 전공하고 새문안, 소망, 동광교회 등에서 예배반주를 해왔으며 현재 평택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2001년 전도자 현황

참가상-오정수, 이영기, 전하미, 김명애, 이재권, 정경미, 최중시, 홍성해, 최혜경, 박정심, 김연정, 홍광숙, 김선희, 이갑진, 장정화, 김미옥, 김은희, 고정숙, 나금주, 김연옥, 김혜련, 김은숙, 구민영, 홍승자, 염상기, 박경자, 유기순 외145명

(주보를 근거로 함)

전도왕-김은태(13명)

1등-탁경준(8명)

2등-유을상(7명)

3등-이은진, 임옥균, 한명순(6명)

동 정

■ 이종운 목사는 1월1일 오후5시 당회원 시무식에서 그리고 1월3일 오전7시 강남지역 기관장 초청 신년 하례회시 각각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제공: 최죽희 권사기성

(지녀 결혼식을 은혜중에 마치고)

<신간안내>

-서울교회 10년사-

서울교회의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서울교회 10년사'가 발간되었다. '서울교회10년사'는 총 530페이지로 칼라 및 흑백화보와 각종자료들로 구성되어 후대에 남길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가격은 10,000 원으로 교회 1층 서점(테이프실)에서 판매하고 있다.

출판부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 구입제를 도입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성령안에서 송구영신하도록
2.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